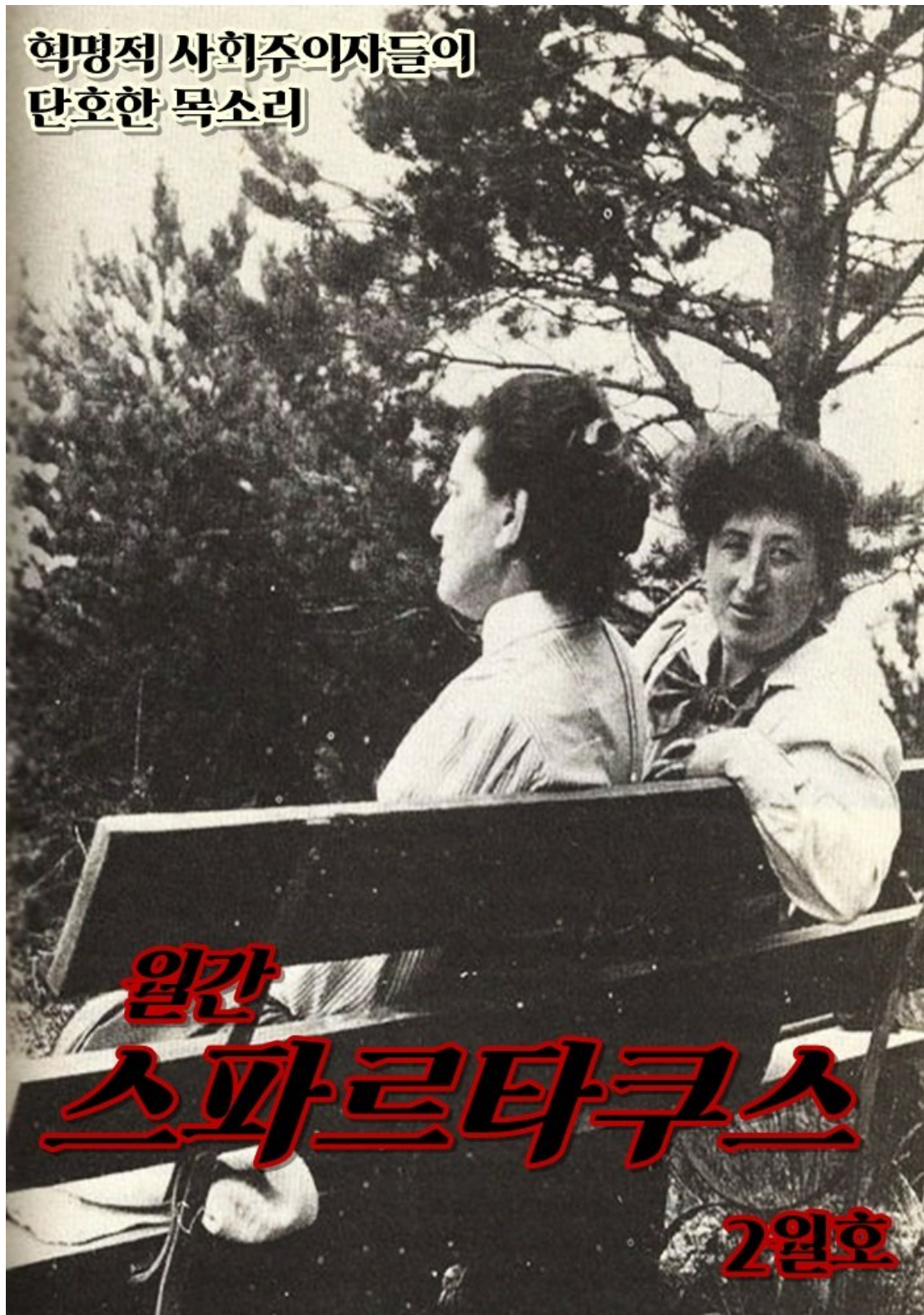


## 월스 2월호 이미지

체트킴

그래도 2월호는 키치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님들 눈건강과 본인의 귀찮음의 조화점을 찾고자 1월호는 텍스트로  
2월호는 이미지로 올림(검열은 본인요청 검열)



# 목차

## 월간 스파르타쿠스 기고란

- For the Many,Not the Few - 3페이지  
[보이스 오브 모멘텀]노동,정치,청년의 연대로 만들어진 모멘텀
- 조지오웰<파리와 런던에서의 따라지 생활> - 1페이지
- 왜 그들은 총싸움까지 하게 되었는가? - 2페이지
- 코로나19 사태에 부쳐 - 2페이지
- 마르크스주의와 진리 - 2페이지
- 크로포트킨 전기 - 3페이지

## 로깅소식

- 로깅의 전망 - 1페이지
- 마무리 - 1페이지



\*이번호는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책소개 등 여러 로깅소식을 실을 수 없었다

기고문 형식: 칼럼

(추신: 대중매체에 기고된 칼럼을 기고한 고닉이  
작성자의 허락을 맡아 공유하여 가져올 수 있었다)

기고자: 이론과 실천(고닉)

작성자: 김지문

(현)모멘텀 집행위원장 (전) 정의당 국제주의자 모임 대표  
(현) 정의당 중앙 대의원 (전) 정의당 한양대위원회 위원장

## 〈 "For the Many, Not the Few" 〉

[보이스 오브 모멘텀] 노동,정치,청년의 연대로 만들어진 '모멘텀'

위의 문구는 영국노동당의 변화,변혁을 지향하며, 같은 길을 추진하는 제레미 코빈 대표의 유임(당 우파들은 코빈 대표를 낙마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을 지켜낸 영국 노동당의 당원모임 <<모멘텀>>의 표어중 하나이다. 러프하게 번역하면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하여'라는 다소 모호하게 들리는 단어지만. 관용구로 본다면 'The Many','The Few'가 함축하고 있는 뜻은 미국의 월가 점령시위 등 민주주의 등에서 나왔던 '1%에대한 99%의 반격'이 의미하는 99%절대 다수의 민중과 1% 소수 기득권세력을 뜻하는 표현이다.

2015년, 영국 노동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 복지담론은 이제 노동당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블레어와 그와 지지자들, 소위 '신노동당' 세력이 이끈 당의 우경화 경향은 노동당과 자유주의 정당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지역의 헌신적인 활동가들은 대부분 대처주의 반대투쟁에서 성장한 40~50대로, 당의 노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청년 학생들은 노동당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당 선거를 외면하였다. 소위 '제3의 길' 신봉자들은 '노동-여성-학생 등 다양한 대중투쟁과의 결합', 코빈의 강경좌파 노선은 좌파들의 선명성 경쟁이라고 치부하며 공공연하게 무시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당사자 운동은 노동당 지지를 꺼려할 수 밖에 없었다. 주요 언론들은 노동당이 다음 선거에서 수십 석 이상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노동당 내부 또한 패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한 상황이었다.

활동가들은 대안을 찾아야만 했다. 그해 5월, 다섯 명의 노동당원, 지역활동가들은 대안적 정당운동의 활로를 찾아 모였다. 그리스의 급진좌파 연합(시리자 Syriza),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등 여러 성공적인 정당모델을 접한 그들은 3개월 간의 치열한 논의와 활동 끝에 그해 8월, 당원모임 <<모멘텀>>을 건설했다.

모멘텀의 시작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모멘텀의 첫 주창자들은 거의 다 50대 노조 활동가들에 가까웠고, 대학조직이라고 해 봤자 옥스포드 인근의 자유주의적 단체들 뿐이었다. 당내의 여론 또한 최악이었다. 노동당의 중진들은 개인주의, 파편화된 영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좌파적 경향을 내세우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모멘텀과 이를 대표하는 제레미 코빈의 활동을 급진좌파,(우리나라에서 흔히 운동권이라고 회자되는) 정치꾼들, 페미니스트들, 의회 바깥의 대중투쟁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이들이 노동당 당권을 장악하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당 바깥 좌파들은 반대로 모멘텀의 출범이 보수적 노동당에 기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의 사진

그러나 반대파들의 비판과 비난은 무력화 되었다. 당내의 풀뿌리 위원회, 민주적 대표성을 강조하고 재확립하자는 모멘텀의 주장은 줄곧 제기되어 왔던 영국 노동당의 경직되고 의원 중심의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었고, 자유주의적인 청년들의 당사자 운동부터, 노동자, 소외되는 학생, 이민자, 여성들과 연대하는 행보는 곧 당 내외의 좌파그룹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도 울림을 주었다. 의회 내부의 정치 이외에는 사실상 의미있는 정치활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지자들의 참여와 결집을 이루지 못하던 노동당은, 모멘텀을 통해 각지역에서 살아 숨 쉬는 정당이 되었으며, 파편화되어 당내외의 시민사회단체로 흩어졌던 청년역량은 노동당으로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코빈과 모멘텀은 흩어졌던 개개인의 다수를 모아 'The Many'로, '99%'로 재조직했다. 2017년. 모멘텀과 그 제휴 관계의 사회단체들이 노동당에 입당하는 것을 결의하자 이미 노동당원이었던 다수의 모멘텀 회원들을 제외하고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신입 당원으로 입당했다. 5명으로 시작한 모멘텀은 2년 만에 4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정치사회단체가 되었다. 결국 이들은 노동당의 참패가 예상되던 총선에서 보수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하며 전략적 승리를 거두고, 이름 그대로 당의 재성장과 좌파적 전환을 위한 '모멘텀'을 이끌어낸 것이다.

엿보기에는 영국 노동당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 저변에 뿌리내린 '정치적 올바름'과 노동정치세력에 대한 혐오 정서에 진보정당이 장단을 맞추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구애하는 것은 일종의 '대중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영국 노동당의 보수적 지도부가 저지른 실책처럼, 스스로 자신들이 가진 폭을 줄이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파편화와 혐오적 논리를 진보세력에 이식하는 기형적 행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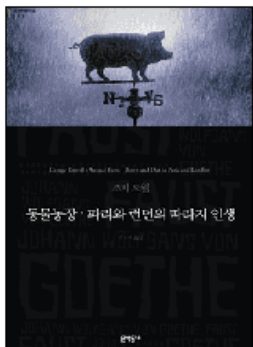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기형적 방향성은 한국의 진보정당에도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비활동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소위 '대중성' 이라는 것을 무기로 휘두르며 당론 등을 오른쪽으로 후퇴시키고, 데이트폭력처벌법 발의 철회, '민주당 왼쪽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자' 등을 자신들의 성과로 삼는 사람들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정당은 '대중정당'이면서 '이념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노회찬의 정신을 이들에게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대학, **지역** , 당사자 운동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진보정당은 사회적 좌파적 견인차로서의 책무도,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할 가능성도 상실해 갈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모멘텀의 약진은 진보정당의 풀뿌리 조직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진보정당의 각 위원회들이 자신의 부문과 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지원행 할 뿐 아니라, 당면한 자유주의 정당, 보수당과의 싸움, 전국적 캠페인 내에서 연대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움직일 오프라인 네트워크도 건설해야 한다. 그 네트워크의 담론은 당연히 노동운동, 소수자 운동, 당사자성과 결합한 연대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각각의 활동가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옆에 실체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진보정당이 되어 좌파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 싸움이 진보의 원칙에만 합치한다면 , 꼭 하방이나 노동자 조직화라는 무거운 책무일 필요는 없다. 소소하고 일상적이지만 중단 없는 투쟁. 이것이 바로 진보정당의 새 '모멘텀'에 대한 제언이다. 소수의 기득권과의 싸움이 꼭 거대할 필요는 없다. 시시한 약자들의 시시한 주장이 송곳처럼 세상을 뚫고 나오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 조지 오웰 <파리와 런던에서의 따라지 생활>

조지 오웰의 (에세이 빼고) 두번째 작품으로, 파리에서 영어 과외를 하다가 학생들이 전부 런하면서 의도치않게 밑바닥생활을 하게된 썰을 푸는 이야기임. 조지 오웰은 버마에서 식민지 관료로 일했던 경험으로 "모든 착취자는 언제나 그르며 모든 피착취자는 언제나 옳다"는 신념을 갖게 되고(그러나 아직 사회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음. 모든 사람들이 더이상 착취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뽕하고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고.) 자기네 국가에도 버마인들처럼 착취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그리고 오웰답게 즉시 온갖 물건을 처분하고 최소한의 돈만 남긴 다음 밑바닥 생활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노숙자는 아니었음. 그렇게 신문에 투고도 좀 하고 글도 썼지만(버마 시절) 딱히 돈은 안됐었고, 접시닢이, 서점 직원같은 자질구레한 일들을하면서 살았음.그나마도 이건 생활이 좀 안정된 때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전당포에 이것저것 맡기던가, 그것도 안되면 부랑자 생활 on이지 뭐. 그렇게 프랑스에서 살다가 삼등 여객선을 타고(제일 싸서) 영국으로 건너와서는 진짜로 부랑자가 되버리고, 스파이크(부랑자 수용시설)을 전전하는 신세가 된다. 이 생활을 한 2년 하다가 결국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게 됨. 그리고 이 생활을 다루는게 런던과 파리에서의 따라지 생활이지!딱히 여기서 오웰의 사상 따위를 엿보긴 힘들지만, 이 썰들을 쯤 재밌게 풀기 때문에 살 가치는 있으니 추천



### 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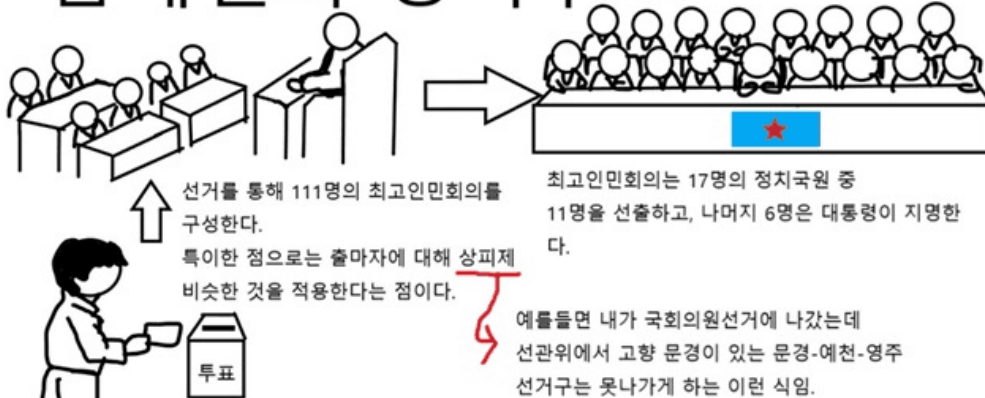
현재 동물농장과 파리와 런던의 따라지 인생이 묶여 있는 판본이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중이다.

## 〈왜 그들은 총싸움까지 하게 되었는가?(수정본)〉

1986년 1월 13일 남예멘의 수도 아덴, 남예멘의 대통령 알리 나시르 무하메드는 개각과 정치국원 회의를 이유로 내각의 각료들을 소집했다. 장관들은 아덴항구 부근에 위치한 사령부에 도착을 했고,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대통령 경호원이 들어와 각료들에게 차를 대접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알리 나시르의 서류가방을 든 다른 경호원이 들어왔다.

그는 서류가방 안에서 서류를 꺼낸 게 아니라 스키폰 권총을 꺼내 부통령인 알리 안타르를 향해 난사했다. 이 총성을 신호로 다른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AK-47소총을 들고 들어와 다른 각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항해 각료들과 각료들이 대동한 경호원들도 반격을 하며 난장판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정치국원 14명 중 11명이 죽었다. [1]

### 남예멘의 정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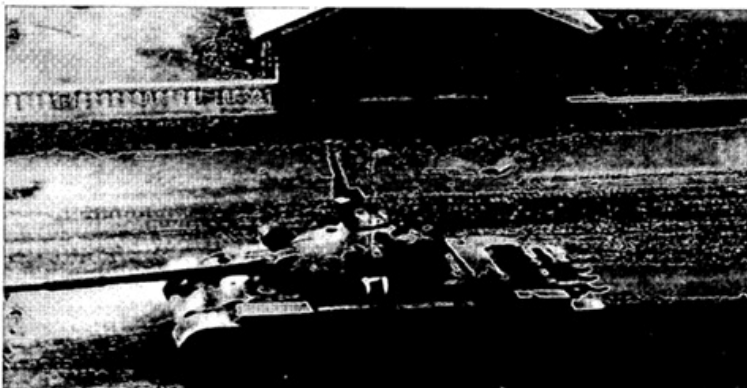


위의 자료는 기고문 작성자가 포함한 사진자료이다

이것이 약 11일간 이어져 온 남예멘 내전의 시발점이다. 이 글을 읽게 될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아니 그냥 죄목 만들고 법원을 통해 숙청하면 되지 왜 저렇게 하냐?” 이 글을 쓰는 나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원문 기사를 보면서 그리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 사회를 보니 막상 그렇게 해봐도 결과는 똑같거나 그 이상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크게 부족, 그리고 봉건이라는 키워드로 잡을 수 있을 테다.

남예멘이 있기 이전의 남아라비아 연방이 토후국들의 연합 국가였고, 남예멘이 영국으로 독립하면서 토후국가들을 일소했지만, 그 토후국가내와 함께한 부족적인 영향력은 일소를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그림과 같이 정치국원으로 뽑히기 전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할 때 상피제를 적용 하더라도 그들과 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 내전 당시 아덴 시내에  
탱크가 도는 모습 〉

1969년 카탄 알 사비 정권이 알리 살렘 알 베이다-압둘 이스마일로 대표되는 NLF[2] 내의 강경파로 정권이 바뀌며 이전에 만든 육군, 해군, 공군, 경찰에 이어 인민민병대를 도입하는데 이 인민민병대는 각 부족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

만약 죄목 만들어서 숙청하는 방법을 쓰면 숙청된 사람의 출신 부족에서 무기 들고 수도로 가서 실력행사를 하는 골치아픈 일이 일어나니 당시 남예멘 대통령은 이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몰래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것 일 터이다. 그 결과 초한지에서 본 홍문의 연이 20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남예멘에서 일어난 것이다.

---

## 편집자주)

[1]: 작성자는 해당기고문을 보내며 본래 이사건 당시 정치국원은 15명이었으나 사진자료에선 17명으로 표시한 이유가 헌법의 원래 인원수를 표기했다고 보내 왔지만 정작 본문에서는 14명으로 표기했기에 독자들의 혼란을 막고자 서술했다.

[2]: NLF(National Liberation Front): 남예멘의 국가해방전선으로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존속하다 이후 예멘사회당으로 재편된다.



## 〈 코로나19 사태에 부쳐 〉

이번 코로나 사태는 대안우파적 주장이 인민대중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였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대안우파적 가치관으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이 흔히 보인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대안우파의 대중화는 상당히 성공적이라도 볼 수 있다. 이들 대안우파의 주장은 심히 포퓰리즘적이다. 여기 몇가지 대안우파적 주장들을 보자면,

- ◇자본주의 자유시장체제를 옹호한다.
- ◇경제적으로 자유주의를 매우 신봉하나, 문화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다.
- ◇북한과 중국을 혐오한다.
- ◇종미적이고, 때로는 종일적이다.

이런 극단적 주장들에 힘을 실어준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로, '중국'이라는 존재다. 중국과 북한은 대안우파가 동력원으로 삼고 있는 혐오의 대상이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은 중국인에게 인종차별적 선입견을 씌우기도, 현 정권의 인도적 지원을 비난하기에도 적절하다.

둘째로,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점이다. 이들의 정권 비난의 대표적인 요지는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다. 왜 정부에서 마스크 가격을 통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마스크 업체를 사회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 감염병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마저 상품화 시켜버린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로, 우파의 미디어, 언론 장악이다.

대안우파의 주장이 수구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다.

조중동, 극우 유튜버들의 미디어와 언론 장악은 여론을 우파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세력이 결집되도록 했다.

위 세 가지의 큰 이유와 인민들의 만연한 반중 정서, 현 리버럴 정권의 낙관론적  
안일함 등 여러가지 악재가 합쳐져 대안우파적 주장은 큰 힘을 받게 되었다.

1월호 기고문에서 경고한 "청년들의 정치무관심이 대안우파적 주장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말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더불어 수구 세력과 연합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진보좌파가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난 이 상황을 감히 진보좌파의 '위기'라고 보고 싶다.

수구 세력과 대안우파의 연합은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의회주의 전략도

매우 어려워지게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적극적인 '사회주의 대중화 투쟁'이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현 체제에 불만이 많은 청년 세대를 사회주의로 끌어들이기

위해 반드시 변혁적, 대안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 이 점에서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사회주의 대중화 노선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미디어와 언론을 장악해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여론화하고, 전위정당을

중심으로 억압받는 모든 자들-노동자, 농민, 학생, 소상공인, 지식인-의 '인민전선'을

꾸려 수구 세력과 대안우파의 신성동맹을 향해 가차없는 종결적 타격을 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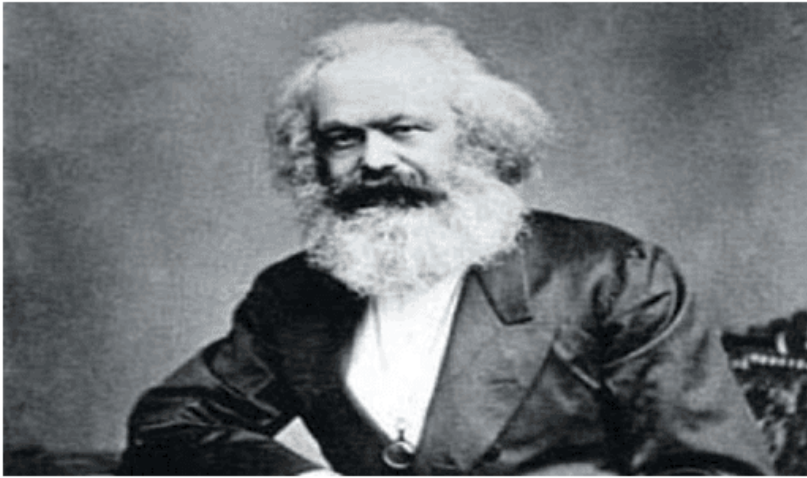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우파의 혐오를 통한 결집과는 다른 사회주의의

사랑을 통한 연대로, 모든 것을 넘어선 연대로! 방해물을 쳐내고 어둠에 찬 이 반도의

땅에 사회주의의 빛이 내릴 때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

## 〈 마르크스주의와 진리 〉



마르크스주의의 적들은 흔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불변의 진리로 여긴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이상한 주장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자기 자신은 물론 어떤 절대적 진리도 인정하지 않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변증법은 인간의 지식을 관념론이나 속류 유물론처럼 옳고 그름, 절대적으로 진리이거나 절대적으로 거짓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모든 지식은 영원한 발전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인간이 진리를 안다는 오만과 인간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허무주의를 모두 배격한다.

레닌은 이런 입장을 언젠가 '전자는 무진장이다'라는 말로 설명한 적이 있다. 인간은 한때 원자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그 다음 인간은 원자를 쪼개질 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 다음 인간은 전자를 발견했다. 레닌은 그 다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전자는 쪼개지거나, 아니면 '현재'에는 상상할수도 없는 다양한 특성을 '무진장으로' 드러낼 것이었다.

그리고 레닌은 옳았다. 인간은 전자를 쪼개지는 못 했으나 전자의 스핀, 쿼크, 양자의 '색'등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시대에 걸친 이 다양한 지식들은 단 하나, 가장 후대의 것만 빼고는 모두 거짓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유물론적 변증법의 대답이다 이 지식들은 모두 사실이자, 모두 거짓이었다.

진리에는 '방향성'만, 더 진리인 것과 덜 진리인 것만 있을 뿐 '목적지', 진실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레닌이 말했듯이, 어두운 방 안에서 촉감으로 거울, 의자, 책상 등의 존재와 구조를 파악하는 사람은 빛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덜 알 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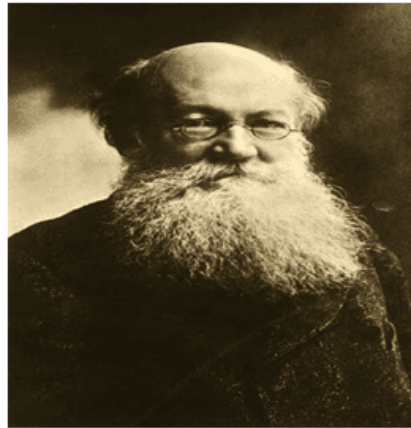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진리란 끝없는 발전과정에 다름 아니다. 인간은 세계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덜 이해하던 것에서 더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란 현재를 긍정함과 동시에 현재를 대체할 미래를 긍정하는 철학이다.

---



# 〈 크로포트킨 전기 〉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그는 바쿠닌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탁월한 ана키즘 이론가이자 혁명가였으며 지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과학자였으며 동시에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한 역사가, 윤리의 역사와 이론, 자유로운 인간의 삶과 억압있는 사회를 연구한 사회철학자였다.

크로포트킨은 1842년 모스크바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남자만 해도 무려 1200명이 넘는 농노를 거느린 대지주였다. 비참하게 노동하는 농노와 그들의 노동 위에 편히 생활했던 이 모순은 그를 평생 괴롭게 만들었으며 또한 그가 ана키즘이란 사상을 일깨우게 해준 계기였다.

이후 크로포트킨은 다른 귀족 자녀들처럼 육군학교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는 졸업 후 근위장교로 일하는 대신머나먼 시베리아로 떠났다.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대신 스스로 힘든 일에 자진한 것이었다, 1872년, 시베리아에서의 빙하연구, 화산 연구 등을 하고 돌아온 그는 스위스로 여행할 기회를 얻는다.

그곳에서 그는 ана키즘과 사회주의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제 1인터내셔널에도 가입한다. 특히, 위도 아래도 없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각자 맡은 부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시계공들의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고 이런 삶의 모습에서 상호부조론의 초석을 구상하였다.

2년 후, 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혁명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건강악화로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었지만 40년이란 긴 망명생활이 시작되었다.

크로포트킨은 이 기간 동안 시베리아 여행에서 본 동물들과 유목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ана키즘 이론을 체계화한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동종 간의 투쟁이 적었다는 점, 인간은 여전히 집단을 이루고 서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그는 상호투쟁 이외에도 상호부조란 보편적인 본능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것이 도덕과 윤리로 발전하여 사회를 이루고 결속시켜주는 힘이라 밝혔다. 이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던 이전 ана키즘 또한 비판한 것이었다.

그는 더욱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자본주의가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인위적인 희소를 일으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 속에서 이윤을 챙긴다고 밝혔다. 또 노력에 비례하지 않고 더 높은 지위(작업반장이나 더욱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따라 차등되게 지급되는 급여제가 노동자들의 단합을 억제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전 ана키스트들과 다르게 크로포트킨은 평등이 ана키즘과 공산주의의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인간을 노예로 만드며 타인의 노동력 착취에 기초된 사유재산의 수호자라고 비판하였다. 국가의 대안으로 그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자치하는 단위들의 자유로운 연방, 일종의 코뮌을 제시하였다.



케렌스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마침내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다. 케렌스키가 그에게 정부 고위직을 제안했지만 크로포트킨은 그의 신념대로 '구두담이의 일이 더욱 유익하다'며 거절하였다.

하지만 2월 혁명 직후 러시아의 모습은 그의 이상과 거리가 멀었다. 특히, ана키즘과 사회주의의 깃발 뒤에 사상을 악용하는 애송이 혁명가들을 목격한 이후 그는 의구심을 지녔다.

마침내 10월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자유로운 주와 민족들간의 긴밀한 연방을 주장한 레닌과 소비에트의 이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낡은 체제와 싸우기 위한 일당독재가 새 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혁명 이후 노년인 그는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혁명과 이상을 위해 레닌과 면담을 하고 저서를 집필하는데 그의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다.

1921년, 79세의 나이로 크로포트킨은 세상을 떠난다. 그의 장례식이 있는 당일, 러시아 ана키스트들의 최대의, 그리고 최후의 집회가 일어났다. 이후 ана키스트들은 탄압당해 대부분은 시베리아로 유배되었거나 외국으로 도피해야만 했다.

-----

# 마무리



**월**간 스파르타쿠스 창간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며 정치적 목소리 뿐만 아니라  
소소한 정보공유로서의 기고문을 받으며 월간 스파르타쿠스의 다양성은  
그가치를 빛나게 했다.

월간 스파르타쿠스에 올릴글을 선정하고 편집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이 담당하며 오는  
한계들은 양해해주길 바란다(아직까진 받은 글은 전부 올린 상태이다)

로겔의 발전에 비추어. 2월에 들어선 로겔의 급변과 더불어 로봉이들이 많이 늘고  
이에따라 기고문의 수도 저번달에 비하여 늘어났다.

월간 스파르타쿠스는 로겔의 소식과 로봉이들의 기고문으로 이뤄지며.  
기고해준 로봉이들에겐 감사의 말을 표하며. 읽어준 로봉이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